

잘 먹이는 것만큼 중요한 아이들 요충검사

작년 어느 날,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가 뭔가를 뱉어냈다. 가늘고 긴, 밝은 주황색의 벌레를 말이다. 간호사는 물론이고 의사마저도 그 혐기적인 장면에 몸서리를 쳐야 했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의식이 없다보니 자신이 한 일을 모르고 있다.

그 환자가 입을 통해 배출한 기생충은 바로 회충이다. 사람들은 회충이 멸종했다고 믿지만, 회충들은 누군가의 몸속에 숨어 60년대의 전성기를 재현할 그 날을 꿈꾸고 있다. 60, 70년대만 해도 회충을 입으로 뱉어내는 것은 침을 뱉는 것만큼 흔한 일이었다는데, 지금은 ‘혐기적인 사건’ 취급을 받을 정도로 회충의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다. 회충은 기생충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기생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회충이 기생충의 전부는 아니다.

회충이 남기고 간 공백이 워낙 크다보니 기생충 전체가 멸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기생충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새로운 지배자로서의 도약을 꿈꾼다.

현재 기생충계의 판도는 대변검사에서 십 몇 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간디스토마(간흡충)와,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이 진정한 지존임을 주장하는 요충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풍부한 감염원을 거느린 아니사키스, 혐기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파르가눔, 원충의 새로운 강자 작은와포자충(일명 크립토) 등이 호시탐탐 패권을 넘보며 위의 두 기생충을 추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이들이 회충만큼 화려하게 이 나라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한번 터지면 견잡을 수 없는 것이 기생충의 특성인 만큼 이들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기생충계의 새로운 지배자

가 될지를 판단하는 건 아직 이르다. 한가지 확실한 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회충이 몰락한 원인이듯,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첨단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새 지배자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리라.

이제부터 4회에 걸쳐 이번 글을 포함해서 패권에 도전하는 기생충 후보들의 포부와 능력, 신체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누가 진정한 강자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 요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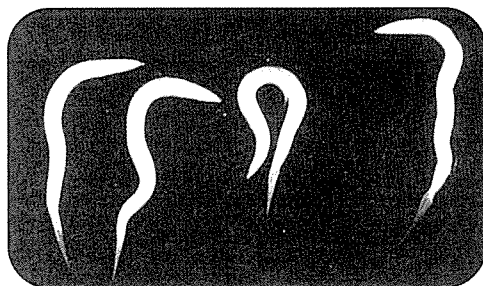
어머니가 아이의 항문에서 1센티미터 가량 되는 흰 벌레가 꼬물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놀란 어머니는 당장 그놈을 때려죽이지만, 그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놈은 지난 석달간 아이의 몸속에 들어앉아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뺏어먹고, 생식, 수면, 놀이 등 할 짓을 다 하고난 뒤, 마지막으로 알을 낳고 죽기 위해 항문으로 기어나온 거니까. 단물을 다 빼먹고 죽으려는 놈을 어머니가 대신 죽여준 거다.

이 영특한 기생충이 바로 요충이다. 요충은 여러 면에서 강자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뛰어난 점이 높은 전파력이다. 가족 중 한명이 요충에 걸리면 결국에는 전 가족이 다 걸린다.

가족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이 시대에 요충은 가족이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래서 요충환자가 있는 학교나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요충

환자가 있는 경우 요충에 걸리지 않은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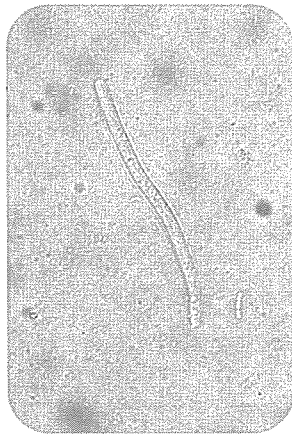
요충에 걸리는 건 요충알을 먹어서인데, 요충알은 내구성이 뛰어나 건조한 환경



등 약조건 속에서도 2~3주간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충환자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지하철 손잡이마다 요충알을 묻혀 놓는다면 손을 잘 안씻는 우리 국민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지하철 이용객의 반 이상을 요충 환자로 만들 수 있다. 항문 주위 가려움증이 요충의 증상인데, 사람들이 단체로 엉덩이를 긁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엽기적이다.

요충의 또 다른 강점은 대변검사로 진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변검사 1위인 간흡충이 지속적인 견제와 질시의 대상이 되는 반면, 요충은 그런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사람의 소장에는 사는 대부분의 기생충은 먹고 놀고 알 낳는 걸 모두 그 자리에서 하므로, 대변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 반면 요충은 맹장에 살면서 몸 가득히 알을 채우고 난 뒤, 대장과 직장, 항문에 이르는 길고 긴 여정을 마친 후 항문 주위에 알을 낳고 전사한다. 대변검사에서 요충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며, 그런 까닭에 대변검사로 확인된 요충의 감염률은 기생충이 많던 1971년에도 1.3%에 불과했다.



항문 주위에 알을 낳기 때문에 요충검사는 항문 주위를 스카치테이프도 도말해서 검사해야 하며, 그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 충청남도 한 초등학교에서 14.8%, 같은 지역의 유치원 26.1%가 요충환자였고, 충청지역 유치원생 4,711명 중 434명 (9.2%)이 요충에 걸려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요충을 숨은 실력자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요충이 아이들의 기생충이라는 것도 강점이라면 강점이다. 간흡충이 회를 좋아하는 어른들을 목표로 삼는 데 비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위생관념이 희박한데다 방금 항문을 만진 손가락을 쪽쪽 빨아대는 아이들의

특성은 요충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출산을 저하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요충으로서의 위기일 수 있겠지만, 워낙 영특한 놈이니만큼 쉽사리 멸종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이를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충이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아이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요충이 가로채는 건 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잖는가.

2. 선모충

선모충은 근육에 기생하며 사람에게 근육통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이것의 유리한 점은 숙주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요충이 사람에서만 어른이 되는 반면, 선모충은 어떤 동물에서도 어른으로 자라 새끼를 낳는다.

그렇다면 선모충이 굉장히 유행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선모충 환자는 98년에 발견된 3명이 전부다. 왜 그럴까. 그건 선모충에게 내재된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다.

다른 기생충이 대변으로 알을 낳아 자손을 퍼뜨리는 데 비해, 선모충은 태어난 새끼들이 모두 근육 속에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 감염된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한 - 게다가 날것으로 - 걸리기가 불가능하다. 돼지를 야생과 차단된 환경에서 기르고, 그나마 바싹 구워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선모충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붙일 수 없었던 거다.

앞으로도 '빚돼지 바비큐를 먹은 13명이 단체로 걸렸'다는 수준에 머무를 텐데, 낮은 전파성이라는 치명적 약점 때문에 한 선모충이 대거 유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Z**

서민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민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